

2023년 1월 22일

하느님의 말씀 주일 연중 제 3주일 간지 제 624호

## ✦ 우리들의 정성 【1월 9일(월) ~ 1월 15일(주일)】

연중 제 2주일 주일헌금		4,125,700원		구유경배예물		2,000원		주일미사 참여자수		692명	
교 무 금 2,890,000원	강한석 실 바 노			고건영 마 리 아			권재석 니콜라오			김미아 소 피 아	
	김민진 에 디 타			김선중 데 레 사			김승태			김승현 시 문	
	김창석 사도요한			김휘숙 켄 마			나정선 마 리 아			박상준 안또니오아바스	
	박종성 미 카 엘			방성호 프란치스코			배동춘 대건안드레아			배명춘 아나스타시오	
	서승환 제 노			서홍규 스테파노			손순남 모 니 카			손영진 베 드 로	
	안숙자 모 니 카			안혜지 엘리사벳			오희용 시 문			이강훈 바 울 로	
	이낙현 클레멘스			이미혜 루 시 아			이영순 마 리 아			이종식 다 빗	
	이해성 크리스티나			임병도 라 파 엘			임부영 안 젤 라			장덕진 미 카 엘	
	장보옥 수 산 나			정찬영 안 젤 라			조현숙 로사리아			차경숙 마 리 아	
	채명관			최영만 알베르토			최영필 요 아 김			최은진 마리데레사	
홍순주 안 젤 라			홍화자 젤뚜르다								
감 사 헌 금	이동환 스테파노	100,000	익 명	100,000		서승환 제 노	200,000				
성소후원금	김정한 프란치스코	10,000	박상준 안또니오아바스	10,000		최인숙 헬레나	120,000				
제 대 초	강경옥 안 젤 라	10,000	강진경 헬 레 나	10,000		강진웅 프란치스코	50,000				
	권인규	100,000	권재석 니콜라오	20,000		김경숙 아 네 스	20,000				
	김경옥 소화테레사	20,000	김귀순 세시리아	20,000		김금순 루 치 아	50,000				
	김민경 아 네 스	10,000	김창호 마 리 노	10,000		김철애 실 비 아	10,000				
	김태일 아 네 스	10,000	나정선 마 리 나	20,000		박상준 안또니오아바스	50,000				
	박현숙 아 네 스	10,000	박희웅 이냐시오	30,000		배동춘 대건안드레아	10,000				
	백진중	50,000	서승환 제 노	50,000		성명자 마리안나	10,000				
	손순남 모 니 카	10,000	송경일 요 셉	10,000		송진욱 요 셉	20,000				
	신덕호 아우구스티노	10,000	신승철 바 오 로	10,000		안숙자 모 니 카	10,000				
	우미자 엘리사벳	10,000	이선화 안 젤 라	10,000		이선주	10,000				
	윤영자 비비안나	50,000	이경순 데 레 사	10,000		이기진 요 한	20,000				
	이미경 로사리아	20,000	이영선 카타리나	10,000		이영숙 루 시 아	30,000				
	이영희 마 틸 다	10,000	이운설	10,000		익 명	40,000				
	임경순 미카엘라	20,000	장계옥 마 리 아	50,000		전수영 아 네 스	10,000				
	전재한 비 오	10,000	정유진 라파엘라	20,000		차경숙 마 리 아	20,000				
	채주희 아 네 스	10,000	최길순 사 비 나	20,000		최영필 요 아 김	20,000				
	한상범 다 니 엘	10,000	홍혜경	10,000							
제 대 꽃	손순남 모 니 카	10,000	홍화자 젤뚜르다	10,000							
토지·건축 헌금	중고등부복사단	200,000	권재석 니콜라오	50,000		홍순주 안 젤 라	100,000				
	윤영찬 스테파노	100,000	김승태	20,000		본당운영비절감	5,000,000				

본당 부채 현황(교구차입금·토지)	금주 토지·건축 봉헌금	본당 부채 적립금
1,200,000,000원	5,470,000원	5,620,000원

계좌번호	우리은행 1005-601-858011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(책정자명과 세례명 꼭 기입)
------	---

♡ 봉헌해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♡

## 감 사 드 립 니 다

거룩한 전례를 위해 성가책 100권을 신자분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

※ 책을 소중히 다뤄주시고 다음에 사용하실 분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